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공공미술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0. 6. 3.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2020. 8. 9.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2020. 8. 18.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2020. 8. 12.

전국에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공공미술 사업인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는 예술가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공미술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에 약 4억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고,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스토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형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각 자치구는 사업 장소와 프로젝트 유형을 결정하고 작가팀을 공모·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승인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충북도도 11개 시·군에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자치구에서 1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시행되며 ▲벽화·조각·회화·미디어아트 등 작품 설치형 ▲문화적 공간을 조성 및 전시형 ▲거리 편의시설 조성 등 도시재생형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형 ▲다수 유형 복합추진형 등 시·군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들의 접근이 쉬운 공공장소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등에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총 75억 원의 규모로 진행되며, 시·군당 약 37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지역 예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해 설치장소와 사업유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참여 작가들의 제안을 받아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